2020. 6. 25.(목)
9:30~11:40

발표자료집

제1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

통계청 통계개발원 |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제1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

발표자료집

프로그램

일시 : 2020. 6. 25.(목) / 9:30~11:40

시간	주제 및 발표내용	발표 및 좌장
09:30~09:40	인 사 말 씀	김 광 섭 통계청 차장
09:40~10:00	기 조 연 설 『사회동향』 좋은 사회를 향한 지도	이 재 열 교수 (서울대학교)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		좌장: 전 영 일 통계개발원장
10:00~11:40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	조 병 희 교수 (서울대학교)
	언택트(Untact) 시대의 1인가구, 현황과 삶의 질	변 미 리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과 신종위험(COVID-19) 취약성	류 현 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종합토론	토론자 : 이 재 열 교수 (서울대학교) 한 준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자료집

제1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

기조연설

『사회동향』, 좋은 사회를 향한 지도 5
이 재 열 교수 (서울대학교)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 17
조 병 희 교수 (서울대학교)

언택트(Untact) 시대의 1인가구, 현황과 삶의 질 29
변 미 리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과 신종위험(COVID-19) 취약성 45
류 현 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기조연설

『사회동향』, 좋은 사회를 향한 지도

이 재 열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동향포럼
2020. 6. 25

『사회동향』, 좋은 사회를 향한 지도

이재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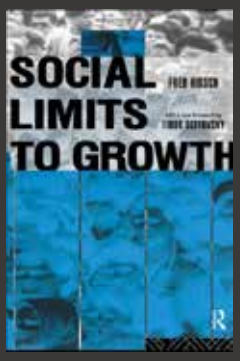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위기증후군

- 세계적인 개방경제 (인구규모대비 무역의존도 최고)
- 인구재생산의 위기(저출산, 고령화)
- 풍요의 역설, 불행감과 높은 자살률
-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 신뢰적자와 낮은 거버넌스 역량
- 낮은 경쟁력 (고투입 저효율 시스템)

성장의 사회적 한계 (Fred Hirs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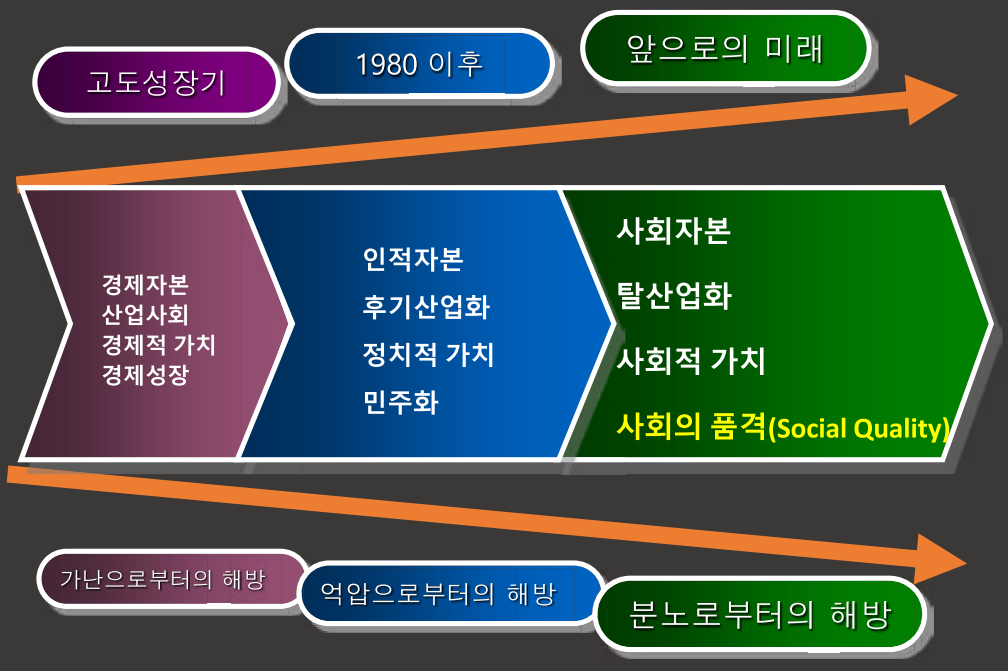
- **물질재 (Material good)와 지위재(Positional good)**

1. **풍요의 역설** (Paradox of affluence):
   경제적 성취가 모든 사람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성취하게 될 때 실망스런 결과를 가져오는가
2. **분배강요** (Distributional compulsion):
   대다수가 파이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왜 파이를 나누는데 집착하나
3. **미온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m):
   성적 기호나 미학적 취향에서는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20세기 사회에서 경제영역에서는 왜 집단적 요구나 국가 규제가 더 보편적이 되고 있나



3

시대별 가치와 지향



4

코로나19가 드러낸 것

무대의 이면: 나라마다 다른 취약성

감옥처럼 닫힌 조직 (신천지교회, 정신병원, 요양병원, 콜센터)

시민사회 없는 국가주의, 묵살된 경보, 감시사회

채용과 해고가 쉬운 고용제도와 실업대란, 고용에 묶인 의료보험, 저축 없는 사회, 빈부격차, 리더십부재

애국적 비밀주의, 매뉴얼 사회의 경직성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 (英 NHS)

코로나 19가 던지는 질문: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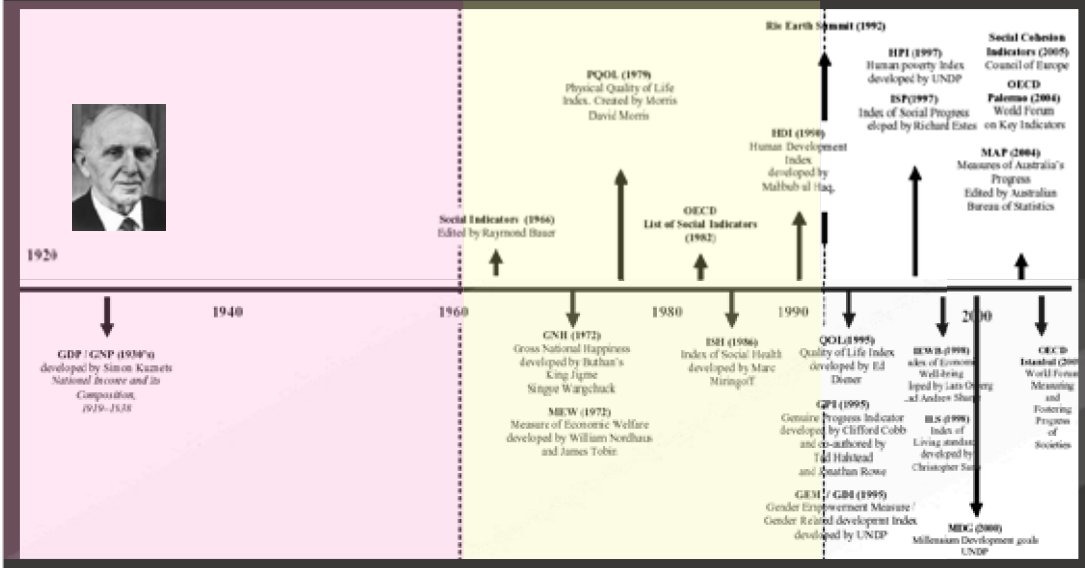
경제적 가치에서 공존과 배려, 생태적 책임으로

육 훈(六 訓)
-집안을 다스리는 지침-
.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마라
.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경주 최부자집의 가훈

8

좋은 사회 기준의 진화 (Beyond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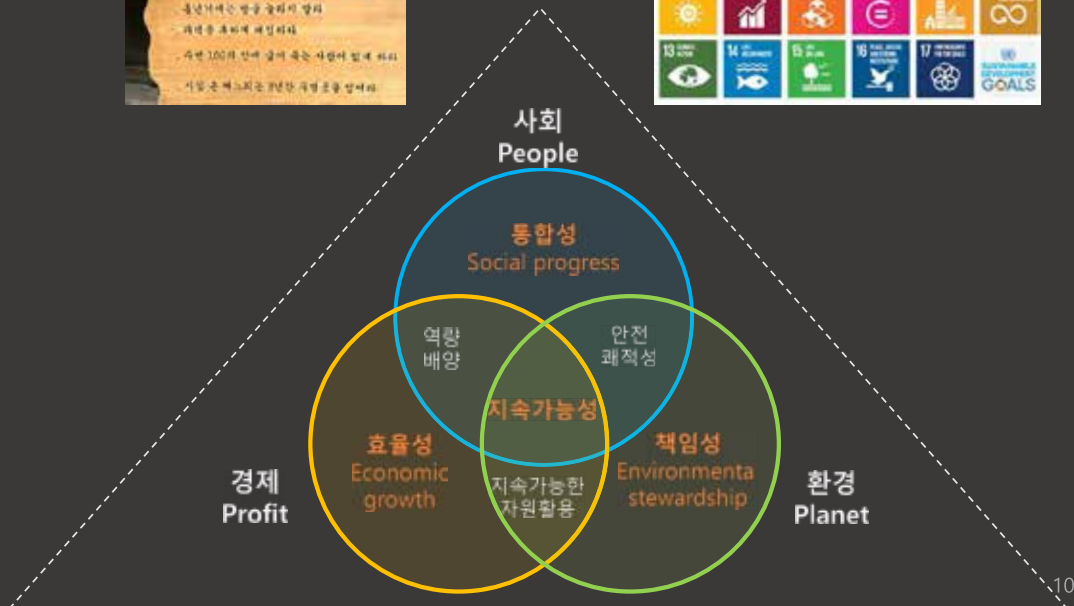
물질적 단계
경제가치

사회적 단계
경제가치
+ 사회가치

글로벌 단계
경제가치
+ 사회가치
+ 환경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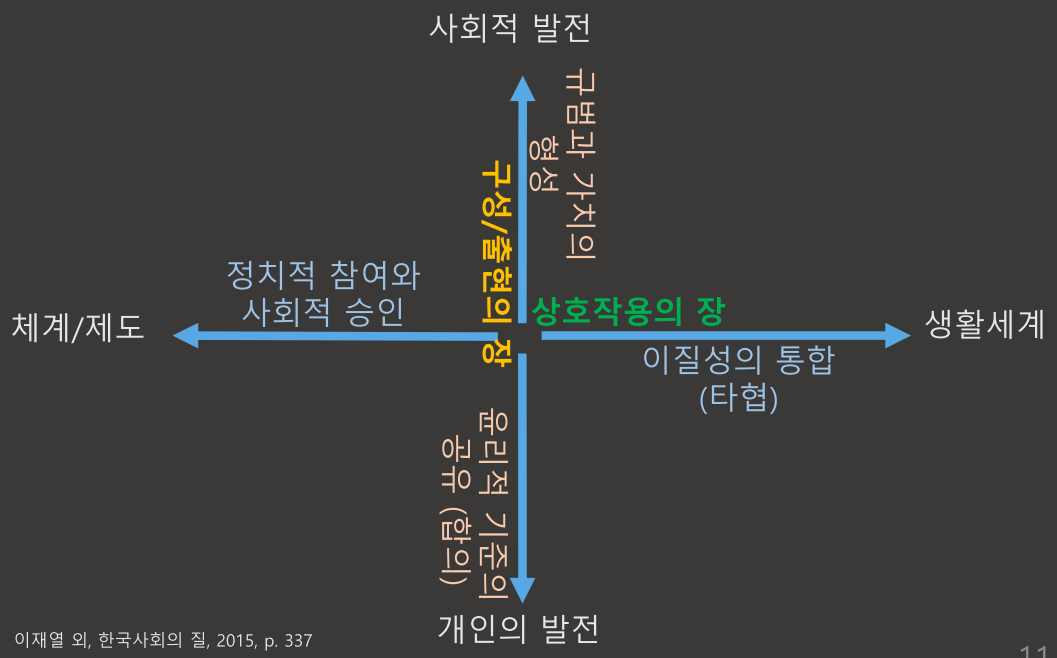
9

최 부잣집과 UN SDGs의 공통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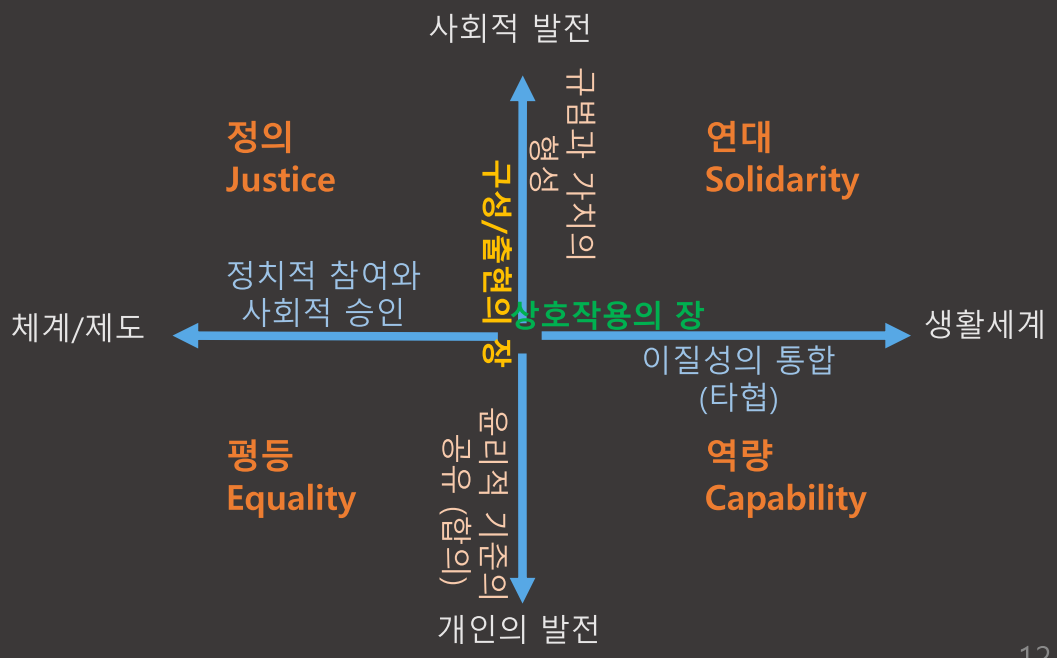
사회의 품격 (social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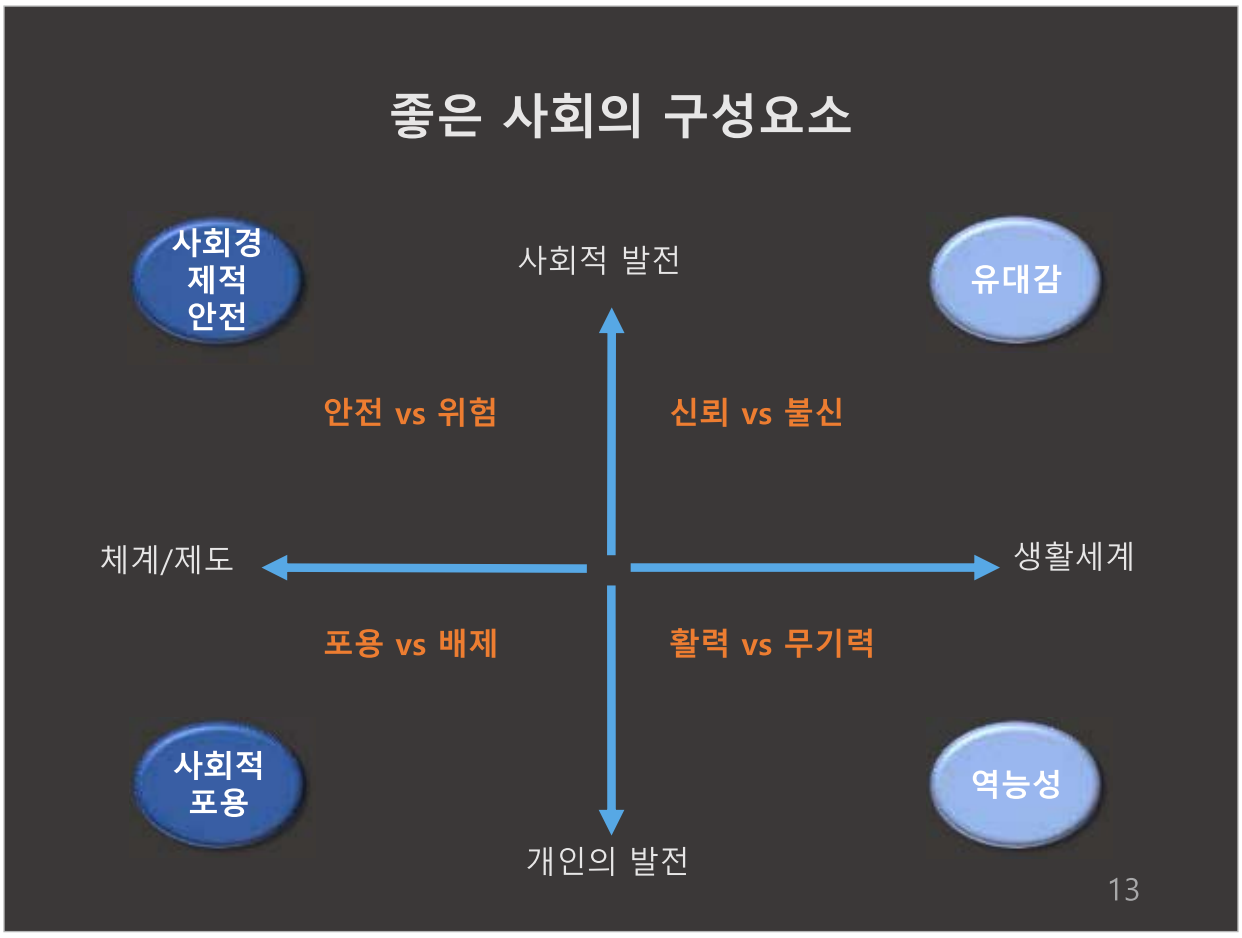
이재열 외, 한국사회의 질, 2015, p.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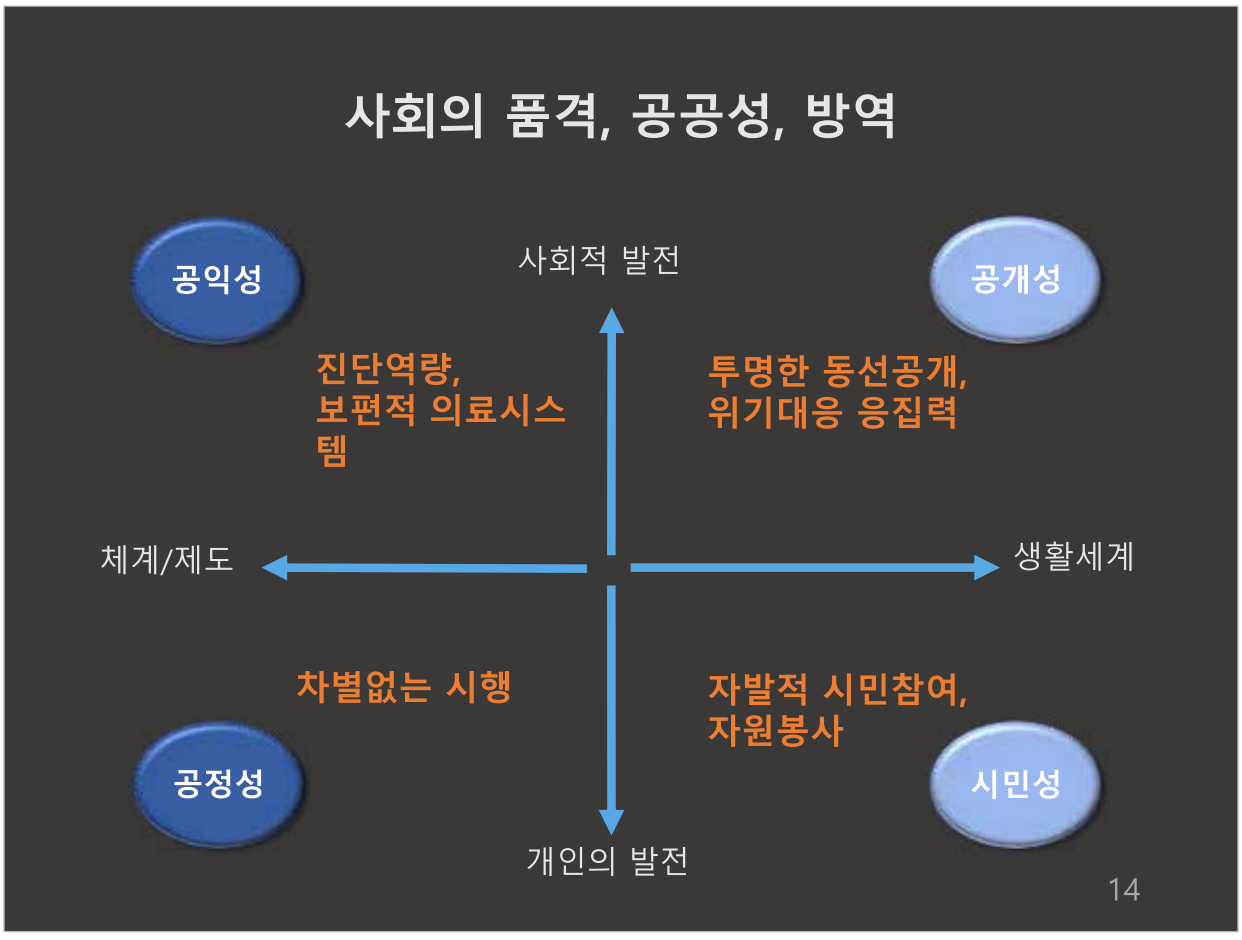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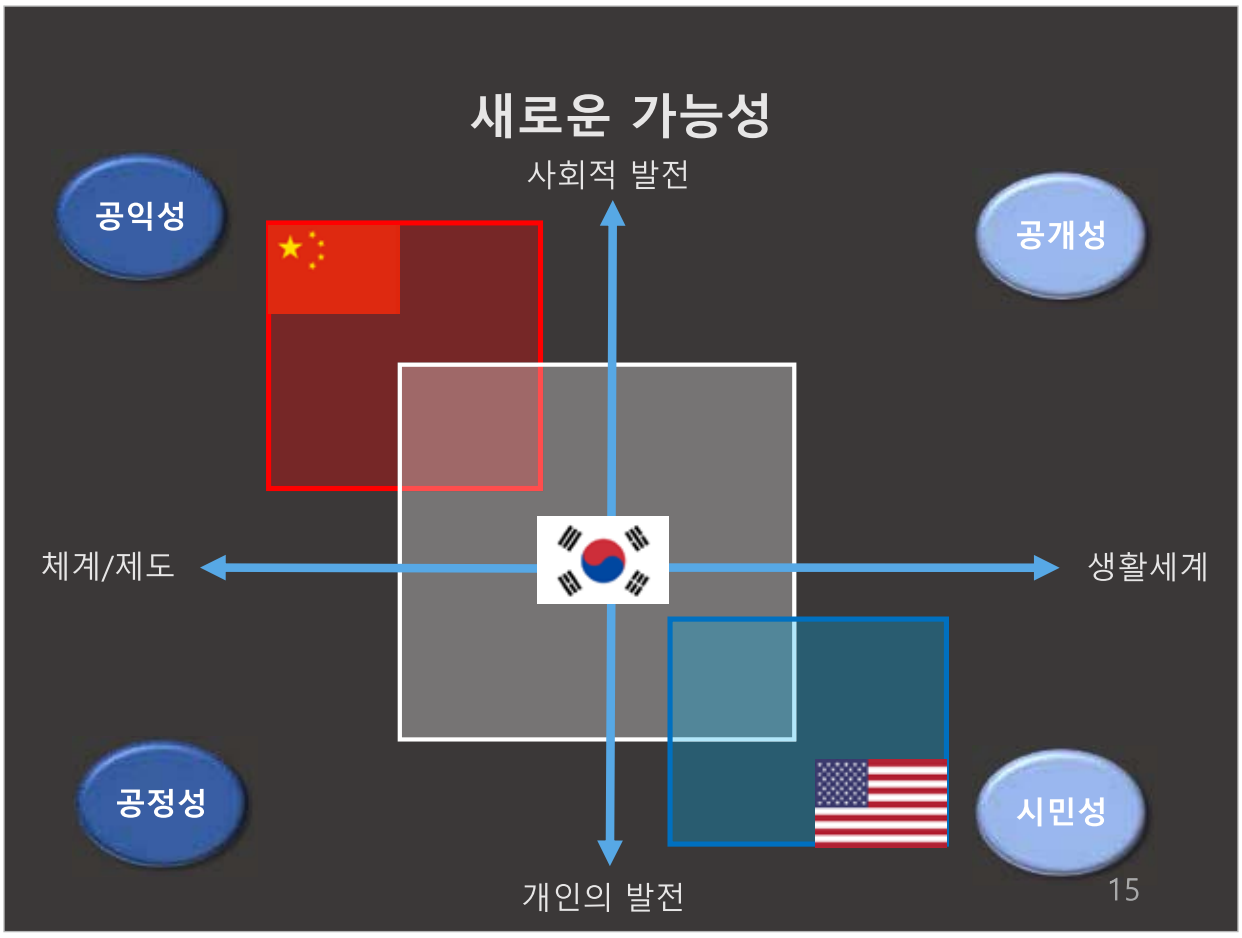
좋은 사회의 가치



12


좋은 사회의 구성요소
사회경제적 안전
사회적 발전
유대감
안전 vs 위험
신뢰 vs 불신
체계/제도
생활세계
포용 vs 배제
활력 vs 무기력
사회적 포용
역능성
개인의 발전
13


사회의 품격, 공공성, 방역
공익성
사회적 발전
공개성
진단역량, 보편적 의료시스템
투명한 동선공개, 위기대응 응집력
체계/제도
생활세계
차별없는 시행
자발적 시민참여, 자원봉사
공정성
시민성
개인의 발전
14



『사회동향』의 역할

-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느끼는 사회의 품격
- 안전과 위험, 포용과 배제, 활력과 무기력, 신뢰와 불신을 가늠하는 척도
- 취약한 집단에 대한 관심
- 국제비교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
- 근거기반 정책마련의 토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

조 병 희 교수 (서울대학교)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theory of epidemiological transition

- Omran(1971)
  - the Age of Pestilence and Famine
  - the Age of Receding Pandemics
  - the Age of Degenerative and Man-made Diseases
- Barrett et al.(1998)
  - the Age of Declining CVD Mortality, Aging and Emerging Diseases
  - the Age of Aspired Quality of Life with Persistent Inequalities

2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

- 개념
  -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감염병의 발생
  - 알려진 병원체인데 새로운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전파되는 경우
  - 과거에 크게 감소했던 병원체가 새롭게 출현하는 경우
  - bioterrorism
- WHO의 경고(2007)
  - 새로운 감염병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출현하고 있음을 경고
  - SARS(2002), avian flu (2003), swine flu(2009), MERS(2012), chikungunya(2013), Ebola(2014), Zika(2015), Lyme disease(2018), COVID1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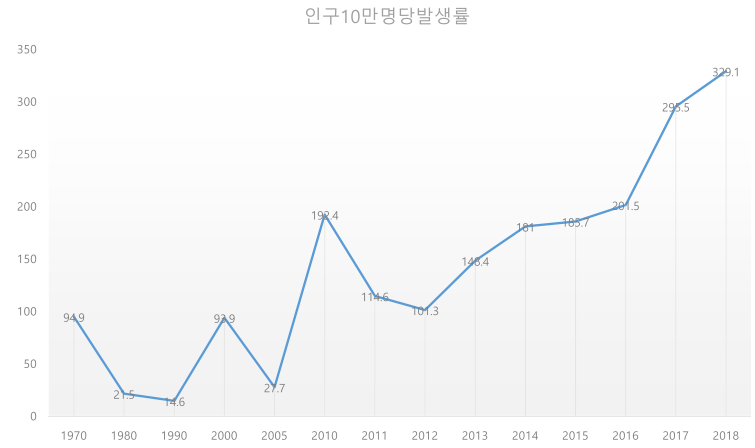
3

contributing factors (IOM, 1992)

- 생물학적 생태학적 요인
  - 미생물의 적응과 변이
  - human susceptibility to infection
  - 생태계 변화, 기후변화
  - land use: 기생충, 모기...바이러스 서식 조건의 변화
  - 야생동물 거래
- 사회경제구조
  - 인구 구성과 안전 행동
  - 경제발전, 국제 이동과 교역
  - 빈곤과 불평등
  - 전쟁과 기근
- 공중보건요인
  - breakdown of public health measures, 항생제 저항성
  - 정치적 의지의 부족, 재원배분 실패
  - 치료제, 백신개발기술
  - 의도적 상해, bioterrorism

4

국내 법정 감염병의 발생 추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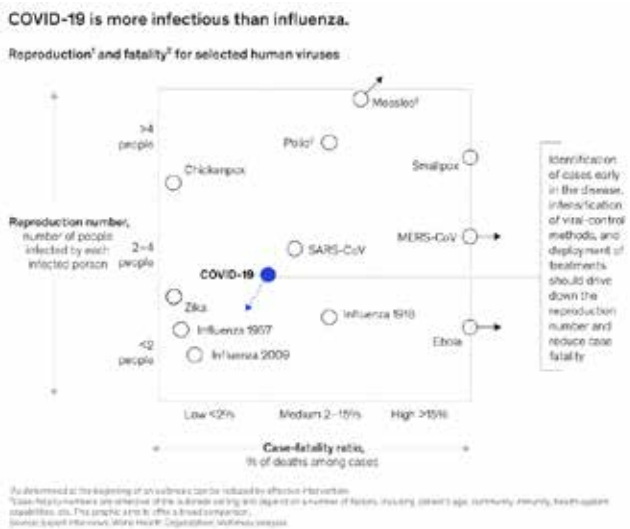
6

주요 신종감염병 발생 현황

발생 현황	SARS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MERS	COVID19 (6월14일자)
세계	8,273명 감염 775명 사망	665명 감염 229명 사망	약7억명 감염 18,449명 사망	2,494명 감염 858명 사망	798만명 감염 44만명 사망
치명률	9.6%	34%		34-35%	5.5%
국내	20명 감염 사망 없음	보고되지 않음	76만명 감염 263명 사망	186명 감염 38명 사망	12,121명 감염 277명 사망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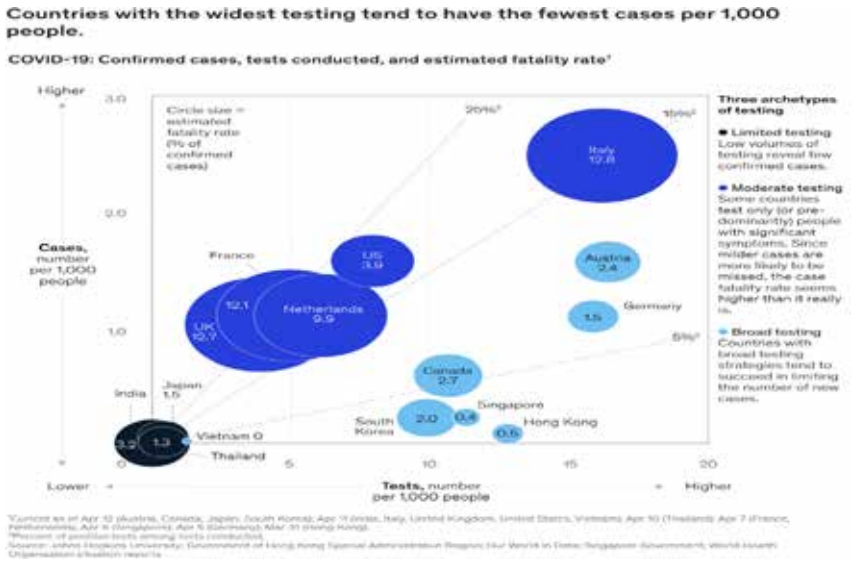
COVID 질병 특성: 강한 전파력+높은 치명율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risk/our-insights/covid-19-implications-for-business

8

국가별 COVID19 대응의 차이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risk/our-insights/covid-19-implications-for-business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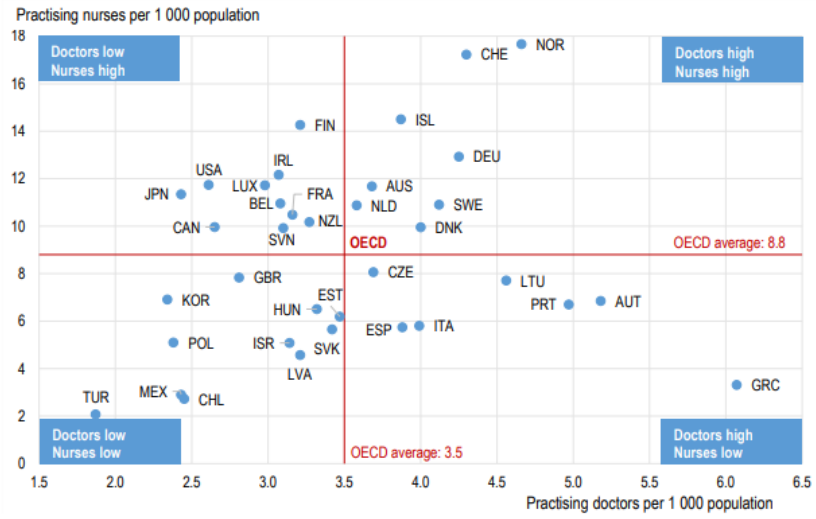
COVID 대응의 성공 요인

- 기술: 광범위한 감염자 추적 모니터링-고비용 방역
  - 진단시약 생산: 과학기술 진흥정책(?)
  - 검사소 설치운영
  - 검체 분석 능력: 진단검사를 발전시킨 의료계
- 공동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생산과 관리
  -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습관
  - 사회적 거리두기-시민의 능동적인 모임 자제
  - 검사, 동선 추적 및 격리에 대한 시민적 동의 (security vs privacy)
- 국가: 확진자 보호, 치료
  - 지역별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국가지정격리병상
  - 공공병상은 적지만 큰 역할+의료진 헌신, 봉사, 파견
  -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치료비 부담
  - 정부의 소통 노력, 정보 개방

11

Figure 4. Number of doctors and nurses in OECD countries, 2017 (or nearest year)

취약한 대응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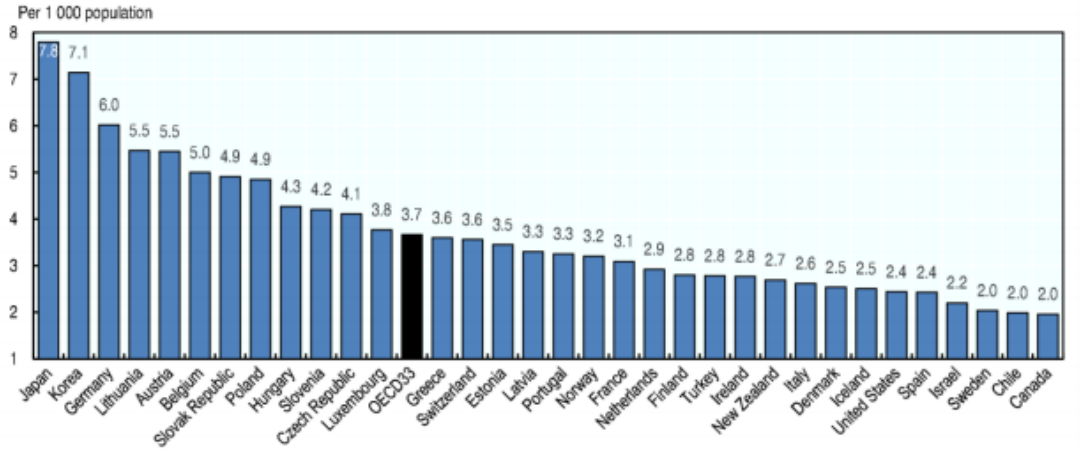


https://oecd.dam-broadcast.com/pm_7379_119_119689-ud5comtf84.pdf

12

Figure 5. Acute care hospital beds in OECD countries, 2017 (or nearest year)

취약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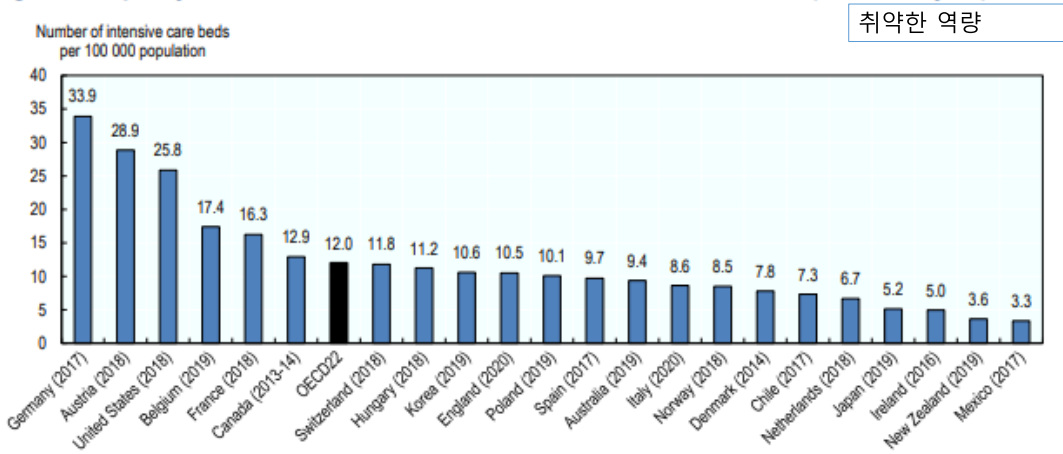


https://oecd.dam-broadcast.com/pm_7379_119_119689-ud5comtf84.pdf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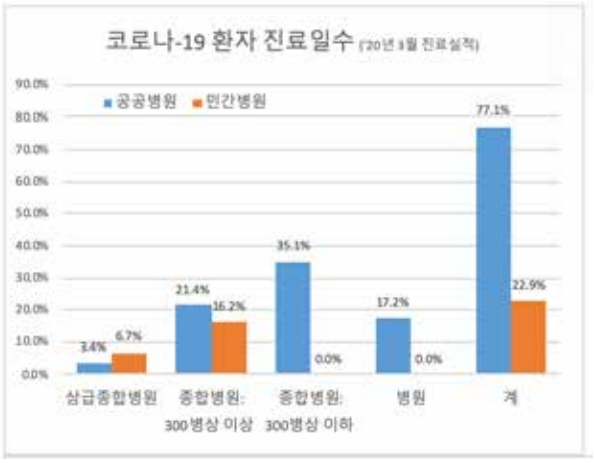
Figure 7. Capacity of intensive care beds in selected OECD countries, 2020 (or nearest year)

취약한 역량



https://oecd.dam-broadcast.com/pm_7379_119_119689-ud5comtf84.pdf

14



김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2020.5.1 복지동향

15

COVID 대응의 취약요인

- 공공의료의 역량(인력, 시설, 거버넌스) 부족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관리 인력, 역량, 경험의 부족
  - 민간의료의 역할 모호
  - 의료(감염병) 전문가 중심의 대응체계
    -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
    - 확진자 숫자 감소=방역 성공지표(?)
- 감염위험의 차별적 분포
  - 노인요양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물류센터, 소규모 교회 등
- 사회적 차별과 갈등
  - 성소수자 집결지
  - 감염자 및 의료종사자 가족

16

감염병 대응의 미래과제

- health security의 설계: 역병에 대비한 (예비) 의료?
  - 봉사와 헌신보다 제도적 해결
  - 의료자원의 배분원칙: 코로나 사망 vs 다른 중증질환 사망
- 경제와 방역의 접점 모색; new normal에 대한 고민과 생활방식의 전환
  -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아이들
  - 문명사적 전환(?)
- 안전문화의 시민주체성
  - 사회적 차별에 공세적 대응
  - 봉쇄-차단에 대응하는 협력-네트워킹 문화

17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

언택트(Untact) 시대의 1인가구, 현황과 삶의 질

변 미 리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제1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발표문

언택시대의 1인가구, 현황과 삶의 질

2020.06.25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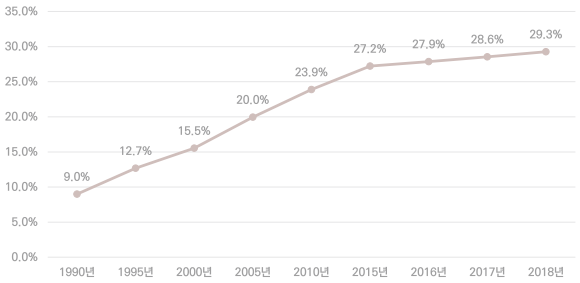
변 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iree21@si.re.kr

01 한국사회의 1인가구 현황과 세계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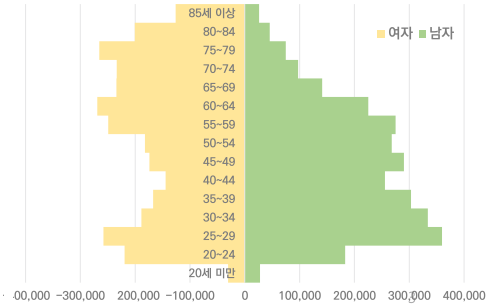
한국의 1인가구는 1990년 9%에서 2018년 29.3%(585만 가구), 2047년 37.3%(832만가구)

-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2000년 15.5% → 2020년 30.1% → 2045년 36.3%
- 전체 1인가구 중 30~40대 1인가구가 31.8%로 가장 큰 비중, 50~64세 비중은 25.1%, 65세이상 24.7%
- 남성 291만가구, 여성 294만 가구가 1인가구, 남자는 25~29세에서, 여자는 60~64세 1인가구 규모가 커

한국의 1인가구 비율(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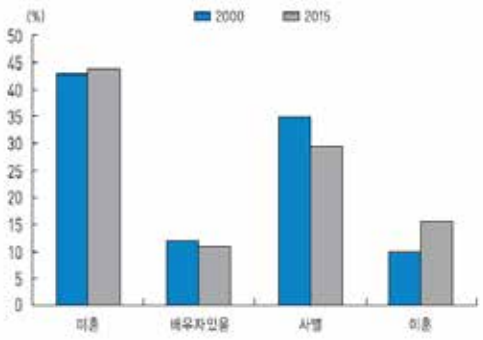
성별/연령별 1인가구(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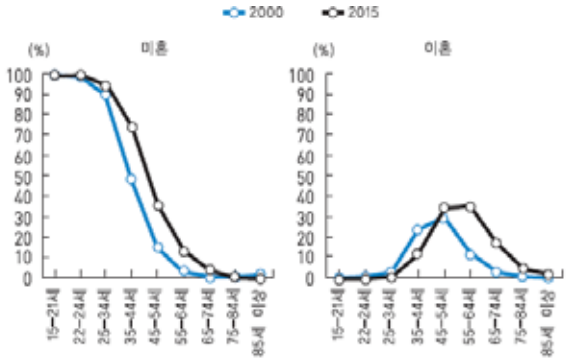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 43.8%, 이혼 15.5%, 사별 29.5%, 배우자있음 11.1%

- 연령별 혼인상태에서는 35~44세, 45세~54세 집단의 미혼 비율이 지난 15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
- 연령별 이혼가구 비율은 44세 이하는 감소 45세 이상은 증가, 이혼가구 비중이 가장 큰 연령집단은 55~64세의 35.2%

한국의 1인가구 혼인상태 (2000, 2015)



연령집단별 미혼 및 이혼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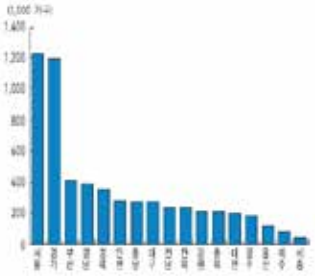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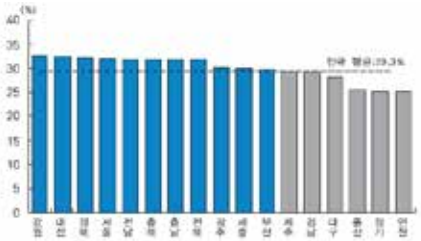
1인가구수는 수도권에 집중, 전체 1인가구의 41.5% 차지, 지역별 비중은 강원,대전, 경북, 서울 순

- 강원, 경남북, 전남북은 주로 고령 1인가구 비중이 높고
- 대전, 서울, 세종은 젊은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도별 1인가구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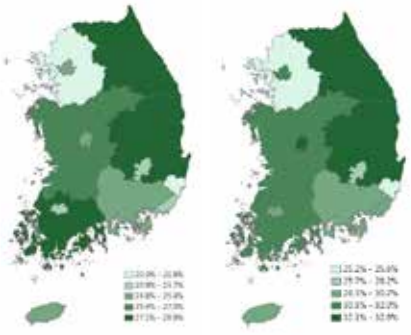
시도별 1인가구 비율, 2018



주: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시도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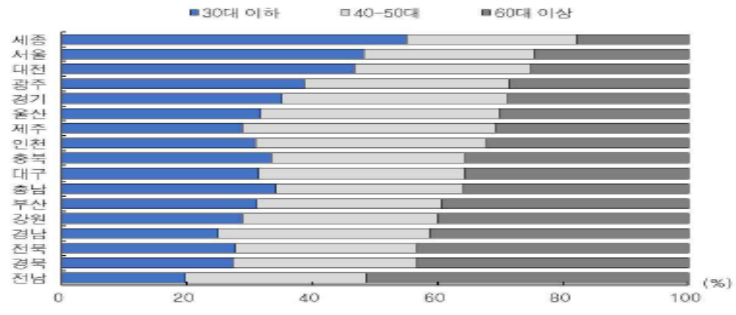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시도별 1인가구(2010, 2018)



1인가구의 연령분포에서 강원, 경북, 전남북은 고령 1인가구 비중 높고 대전, 서울, 세종 등은 젊은 연령층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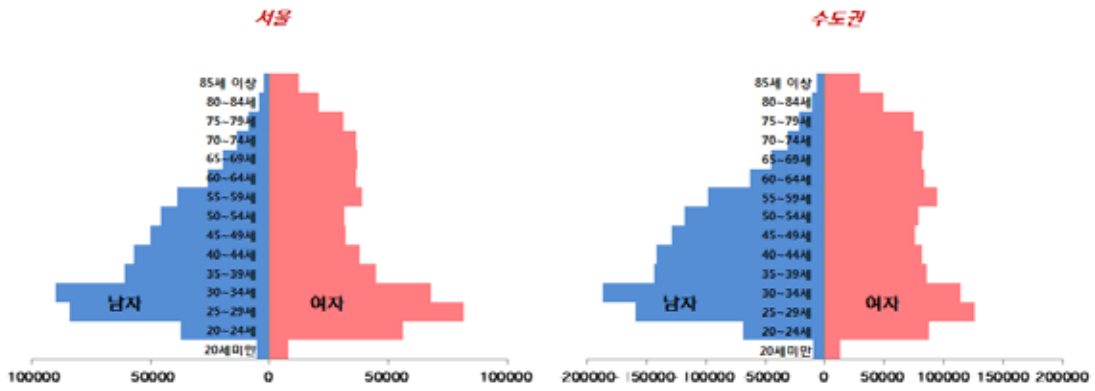
시도별 1인가구의 연령분포, 201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수도권 1인가구는 30~34세에 집중, 서울은 25~34세 집중 분포

수도권과 서울의 1인가구 성별 연령별 구성



7

서울의 1인가구 이동 네트워크

: 청년1인가구는 서울로의 전입 네트워크가 전출 네트워크에 비해 더 확장적

8

서울전입 청년1인가구 네트워크

자료: 통계청, 2015 국내인구이동통계

서울전출 청년1인가구 네트워크

자료: 통계청, 2015 국내인구이동통계

서울시 1인가구 이동 네트워크

: 중장년 1인가구는 전입보다는 전출량이 더 크게 나타나

서울전입
중장년1인가구
네트워크

자료: 통계청, 2015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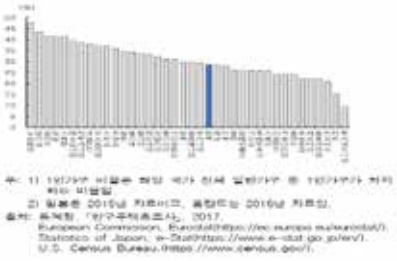
서울전출
중장년1인가구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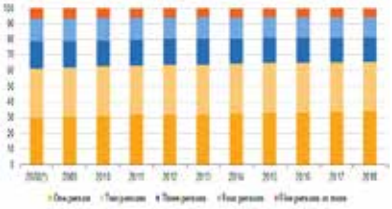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5 국내인구이동통계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이미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가 직면한 현실

- 북유럽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 2017년 기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의 1인가구 비중은 각각 47.5%, 43,5%, 41.7%
- 분석 단위를 도시, 커뮤니티 수준으로 낮추면 특정 지역의 경우 1인가구가 70%를 넘는 지역도 많아
- EU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가구유형이 1인가구 (평균 33.9%)

전세계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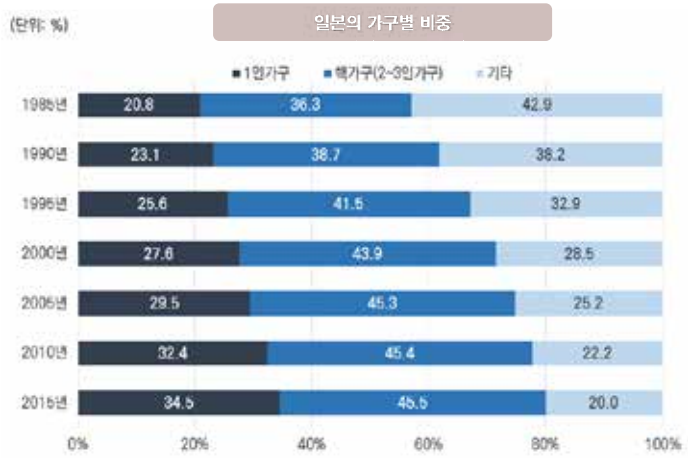


EU 국가들의 가구유형(2008-2018)

미국의 1인가구는 2017년 기준 27.9%, 일본의 1인가구는 34.5%

- 미국의 가구규모는 1960년 3.3명에서 2016년 2.5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주 요인은 1인가구의 증가
- 2017년 기준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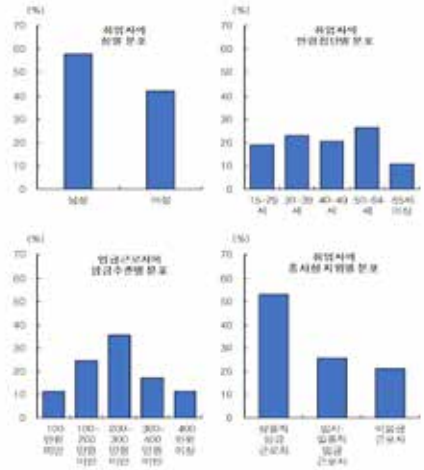
- **일본의 1인가구는 1인가구 1985년 20.8% → 2015년 34.5%**
- **젊은 남성과 여성 고령자 1인가구 비율이 높음**



02 1인가구의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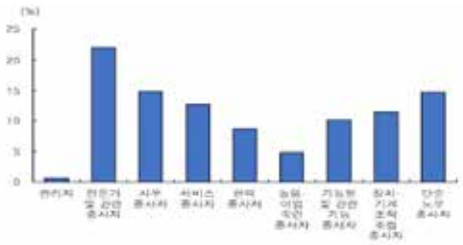
1인가구 전체의 61%가 취업상태이며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35.9%를 차지

1인가구의 취업상태, 2018.10



출처: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및 1인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19. 6.25.

취업자 1인가구의 직업 분포, 20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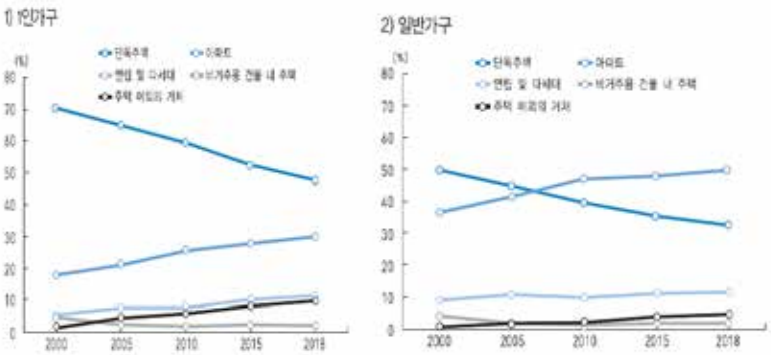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및 1인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19. 6.25.

13

1인가구 거처는 단독주택 47.2%, 아파트 29.9%, 연립다세대 10.9%순 일반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비중이 높으나 최근 빠르게 감소 중

- 2000~2018 사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빠르게 감소 중
- (2000년 70.2%→ 2010년 59.4%→ 2018년 47.2%)
- 청년1인가구의 주거환경은 일반가구에 비해 열악해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거처종류 : 2000~2018년



지역별 주거취약 청년 1인가구 비율, 2016

(단위: %)

구분	원룸	주거취약	지하·반지하·옥탑방	쪽방
일반가구	9.4	3.9	3.1	0.4
청년 1인가구	68.9	6.7	5.4	1.1
서울	69.0	15.7	12.3	3.5
수도권	70.4	11.6	9.7	2.0
지방	67.0	0.4	-	-

주: 1) 청년 1인가구는 19~3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주거취약에는 지하·반지하·옥탑방과 쪽방 그리고 3인 이상 쓰는 단칸방 등을 포함. 3인 이상 단칸방은 그 비율이 낮아 따로 표기하지 않음.
3)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14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전 연령층에서 낮은 비율을 보여

- 1인가구 중 '아무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 는 비율이 76.7% (20세이상 전체인구 중 이 비율은 69%)
- 남성의 75%, 여성의 78.3%가 사회활동에 참여 안함
- 남성은 20대와 70대이상에서, 여성은 2,30대, 70대이상에서 사회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어
- 1인가구의 '고립감'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 가능성 높아

1인가구의 성, 연령집단별 사회활동 참여율, 2015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참여함	25.0	22.8	25.7	27.2	26.8	24.5	19.6
참여 안함	75.0	77.2	74.3	72.8	73.2	75.5	80.4
여성							
참여함	21.7	19.0	21.4	24.7	28.0	27.2	16.5
참여 안함	78.3	81.0	78.6	75.3	72.0	72.8	83.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15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다인가구에 비해 약간 낮은 편

- 1인가구의 23.3%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29.7%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 다인가구의 30.8%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최근 몇년동안 거의 정체 수준

- 1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비지출 역시 기본생활비에 대부분을 소비하며, 중장년 및 고령층의 경우 먹고(식료품) 사는(주거, 수도, 광열) 항목이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1인가구의 주요 여가활동은 TV시청(56.4%)
- 1인가구의 여가 불만이유는 경제적 부담(54.4%)이 가장 높아 (2017년 사회조사 결과 참조)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가구주의 주관적 만족감, 2013-201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16

1인가구의 삶의 질의 문제는 1인가구의 다양성과 연관되어 있어

서울시 1인가구 : 4종5색 1인가구

노마딕 싱글	• 30대 중심 • 대학가, 고시촌을 중심으로 • 직업이 불안정한 블루칼러 종사자들, 청년실업자들, 기존 취업시장에서 후퇴하여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계층
불안한 독신자	• 40대 후반, 50대, 60대의 장년 독신자들 • 기러기 가족, 이혼율의 상승, 기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체된 가족의 결과
실버 싱글	• 고령자 집단 • 독거노인은 사회적, 정책적 보호대상
골드 싱글	• 새로운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집단 (골드미스, 미스터 집단) • 3~40대가 주류로 오늘날 시장(Market)의 주목 대상 • 도시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 형성
화이트 싱글	•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싱글들 • 직업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지만 종사상 지위에 따라 유동적인 집단 • 30대가 초반 연령층

성남시 1인가구의 유형분포

청년싱글	• 20대 중심 • 대학이상의 학력층 • 임금근로자이지만 안정적이지는 않은 상태 • 월세가 주요 주거형태
워킹 싱글	• 40대 중심의 임금근로자 • 직업적 이유로 성남에 거주하는 싱글 • 월세가 주요 주거형태
불안한 중년 독신자	• 50대의 중장년 싱글 • 고졸이하 학력층 중심 • 이혼, 사별 등 가족 해체로 인한 1인가구 • 사회적, 정책적 지원 대상
고령 독거 싱글	• 여성 중심의 고령 독거 싱글 • 전세 살지만 저임금층 • 고령독거노인 지원 대상

17

감염병 시대 새로운 질서와 '비자발적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 – '취약성'이 심화될 가능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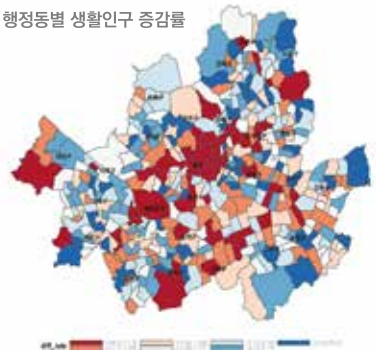
출처: 김인희,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변화, 서울연구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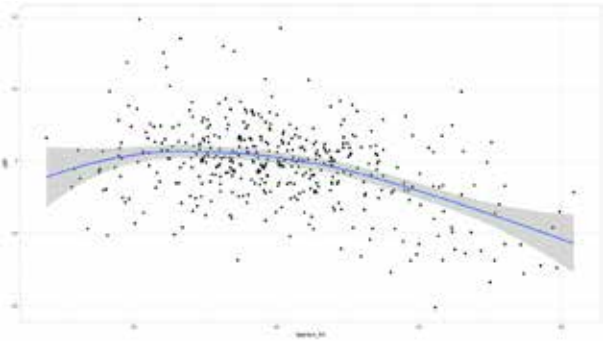
코로나 시기, 1인가구의 '이동성' 제약을 확인할 수 있어

- 도시에서의 위기 발생 시 1인가구의 이동성이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나
- 1인가구 비중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인구유동이 코로나 이전시기(1년전)와 비교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 위기시기에, '취약집단'이 경험하는 취약성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

행정동별 생활인구 증감률



행정동 1인세대 비율과 생활인구 증가률 간 관계



19

03 1인가구 지원정책의 원칙과 사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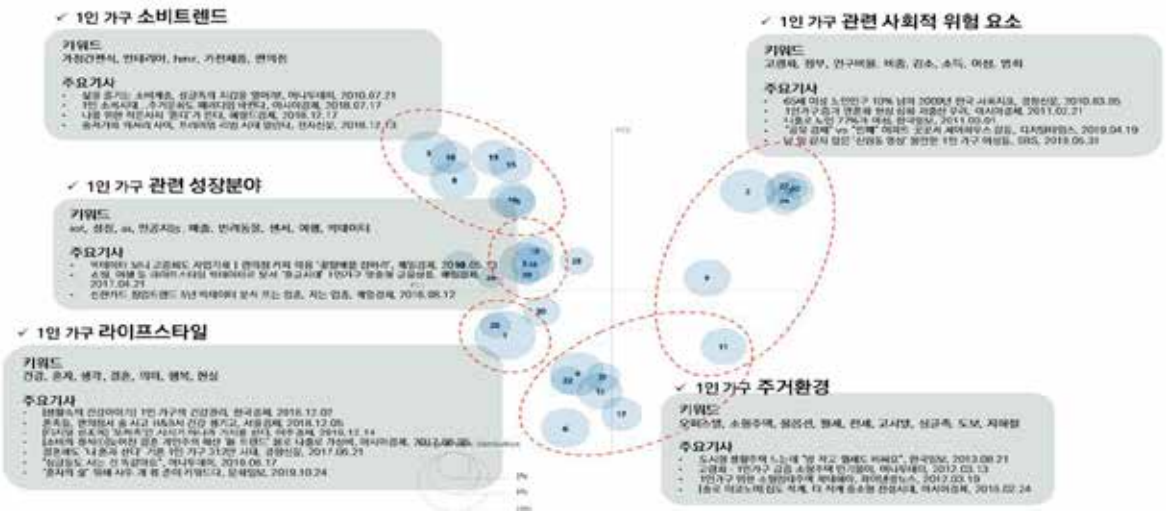
해외 1인가구 지원정책

주택정책 (일본과 영국)	• 1인가구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주목 • 코하우징(co-housing) 프로그램 지원 • 1인가구 주택 건축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를 위한 거주 환경과 안전을 지원 • 비혈연가구가 모여서 거주하는 HMO(Houses in multiple occupation)의 주거 기준을 제시 예: 옥스퍼드(Oxford City Council) – 1인 최소 6.5㎡, 2인 최소 11㎡에 해당하는 층수별 최소 공용면적 설정 5인 이하 셰어하우스에서는 부엌(취사시설)이 7㎡, 거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거실 11㎡ 만일 거실과 부엌이 통합된 경우라면 18㎡ 식으로 매우 구체적인 기준 적시
복지정책 (일본)	• 고독사 관련: 1인가구가 사망하면 그 집을 청소하고 향후 활용계획 제공 서비스 • IT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한 간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 진행 • 안심생활창조사업에서 독거고령자세대의 안심 생활 지원 정책 실시

21

1인가구 시대의 이슈 트렌드

▮ '1인가구' 관련 주요 이슈(토픽모델링 분석)



출처: 서울연구원 정보분석실, 2019

22

정책사례 :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구축과 관련 정책 개발, 시행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1인가구 추진체계는 여성가족정책실 총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치구와 협력

서울시 1인가구 추진체계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의 3대 추진목표, 17개 추진과제

23

정책사례 : 부산시 1인가구 지원 정책

조례 제정 (2016)	• 부산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정한 1인가구 지원사업 첫째,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둘째,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셋째,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 넷째,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다섯째,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여섯째,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거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제공, 1인가구 사회초년생 대상 부산드림아파트 우선 공급 • 햇살둥지: 빈집 소유자와 함께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
안전	• ADT캡스와 홈방범서비스 운영(2015~) •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 안심택배 시범단지 운영, 안심길 조성, 안전진단골목길 모니터링 운영, 안전원룸 시범사업 등 시행

24

정책사례 : 성남시 1인가구 지원정책 (안)

	정책분야	세부정책
01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이해확장을 위한 교육	• 생애주기에서 1인가구로 산다는 것: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 가족다양성과 가족형성 변화에 대한 시민교육 •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적 이해 관련 교육서비스 • 생애후반기로의 자연스런 진입을 위한 준비 관련 고독사 예방과 웰다잉 교육 • 웰다잉 준비 교육
02	고립예방과 상호돌봄 정책	• 동네밥집 지원서비스 • 사회적 가족 형성 지원 서비스 •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 • 커뮤니티 공간의 1인가구 지원 플랫폼 구축 • 고령자 일상건강 지원 서비스 • 하루 한번 통화서비스, '성남 싱글콜'
03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원하는 정책	• 여성안심 동네 환경 만들기 지원서비스 • 1인가구를 위한 AtoZ 생활지원서비스(온,오프라인) • 1인가구 문화놀이 페스티벌 • 1인가구 공동체주거 지원 • 중장년 마음상담 지원서비스 • 중장년 위기집단 발굴 & 지원 서비스 • 1인가구를 위한 AtoZ 생활지원서비스(온,오프라인) • 저소득 1인가구 주거관련 지원

25

1인가구 지원의 기본원칙 : 포용사회지향, 생애주기를 고려한 이행기, 맞춤형 정책

1) 포용사회 지향

- 1인가구화는 '고립 ' 과 '빈곤'이 문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 사회정책에서 1인가구가 배제되지 않는 포용사회 지향 정책 맥락
  - 세계은행(World Bank), OECD, UN 해비타트 등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 도시'를 주요 정책 어젠다로 설정
- 전 생애를 걸쳐 누구나 1인가구로 살아갈 때, 그 부분을 '시장'이 아니라 '공공'과 '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2) 이행기 정책 지향

- 1인가구로 사는 것이 생애주기의 일시적 과도기적 단계인 경우, 다음단계로 이행할 윤활유 공급
- 청년1인가구 지원과 중장년1인가구 지원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

3) 맞춤형 정책 지향

- 1인가구는 동일 집단이 아닌 지역별, 생애주기별, 사회경제적으로 집단별 다양성을 드러내
- 1인가구 지원 정책은 1인가구의 다양성을 고려,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어야

26

1인가구 지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연결망 지원 정책에 무게중심을 둬야

1인가구 중 누가 더 고립에 노출되어 있는가?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외로움 평균값이 높음(출처: 2018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실태조사, 서울시복지재단)
  - 1인가구의 외로움 평균값은 2.44점(4점척도), 다인가구는 2,30점
- 1인가구의 외로움 평균이 높은 순서는 별거/이혼/사별등>미혼>결혼 순
- 1인가구는 전반적으로 외롭지만 미혼1인가구는 관계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 중장년의 외로움과 고립은 노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 영국의 외로움부서의 주요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연결망 확장 프로그램들

저출산시대, 1인가구 지원은 공동체 유지의 사회 가치와 공존 가능한가?

- 1인가구 지원을 통해 '탈1인가구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 존재
- '정상가족'이란? '혼자 사는 사람들을 향한 비정상성 ' 에 대한 시선의 변화 필요
- 사회가 경험하는 가족구조의 '빠른 해체'에 대응하는 정책준비도 높이고 공동체의 문제를 직시해야

27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과 신종위험(COVID-19) 취약성

류 현 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과 신종위험(COVID19)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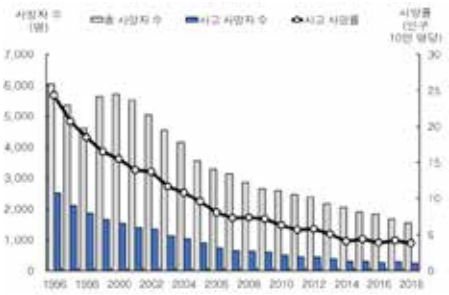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 6월 25일 발표자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

- 안전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9의3), 2018년 1월 18일 시행)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대응이 늦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인명 피해도 큼.
- 한국 사회의 어린이 인구(0-14세): 2018년 기준 전체 인구(5,160만 7,000명)의 12.8%를 차지
- 65세 이상 노인: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5,160만 6,600명)의 14.3%(737만 2,000명) 차지(통계청, 2019).
- 한국의 장애 인구는 총 255만 명, 전체 인구에서 법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장애 출현율은 5.39%(2018년 「장애인 실태조사」).
-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장애 출현율이 매우 높으며, 향후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 출현율은 더 높아질 전망.
- 안전취약계층은 COVID19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에서도 일반인에 비해 매우 취약.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어린이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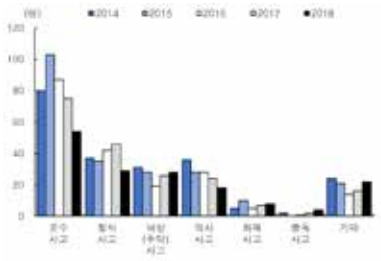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만 678명의 어린이 사망자 중, 사고 사망자 수는 2만 1,357명(26.5%)
-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는 20여 년 동안 1/10 수준으로 급감.
- 2018년 기준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주택(1만 6,343건, 67.8%)에서 발생, 다음으로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1,474건, 6.1%),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1,309건, 5.4%), 도로 및 인도(789건, 3.3%) 순으로 나타남(한국소비자원, 2019).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어린이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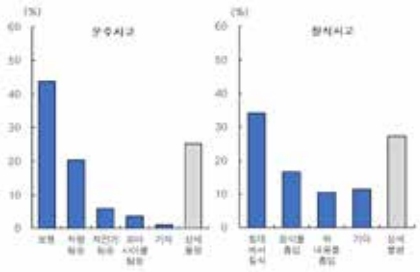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2018년 자살과 타살 등 의도적 사고가 35.6%, 운수, 추락, 익사, 질식, 화재, 중독 등에 의한 비의도적 사고가 64.4%를 차지.
- 2018년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163명의 어린이 사망자 중 33.1%에 해당하는 54명이 운수사고로 사망.
- 어린이는 교통안전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줌.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어린이 주요 사망사고의 세부 유형별 사망자 구성비율, 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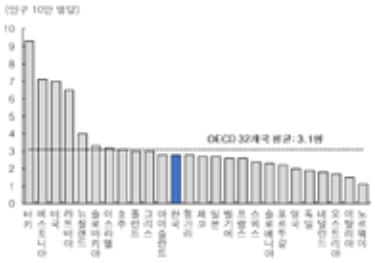


1)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2) 3개년도(2014-2016년) 합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1996-2016」, 보도자료, 2018. 5.

- 2014과 2016년 사이에 운수로 인한 보행사고가 43.7%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차량 탑승사고(20.4%), 자전거 탑승사고(5.9%), 모터사이클 탑승사고 (3.7%) 순.
- 같은 기간 질식사고에 의해 희생된 어린이는 총 114명이었으며 이중 39명(34.2%)은 침대에서 질식, 19명(16.7%)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서 사망, 12명(10.5%)은 토사물에 의해 질식(위 내용물 흡입)하여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92명으로 집계, 냇가나 강 등의 자연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0.4%, 목욕통 7.6%, 수영장 5.4% 순. 나머지 54.3%는 상세불명의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 추락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수는 총 78명이었으며, 아파트나 빌딩 등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56.4%, 침대 낙상 7.7%, 타인 지지 중 낙상 3.8%, 의자 낙상 1.3% 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OECD 국가의 어린이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 2015



주: 1)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1996-2016」, 보도자료, 2018. 5.

-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한국이 2.8명 (12위)으로 OECD 평균인 3.1명에 비해 높은 편.
- OECD 국가의 경우 운수사고 1.1명, 질식사고 0.5명, 추락사고 0.2명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운수사고 1.2명, 추락사고 0.3명, 질식사고 0.6명으로 나타남.

노인의 안전사고 동향

연령집단별 사고 사망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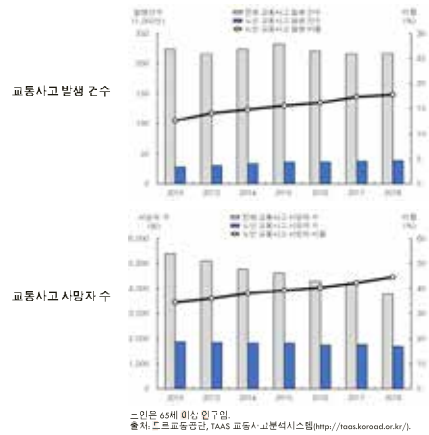
(인구10만명당)

	전체	비의도적사고					의도적사고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전체	507	9.1	5.2	1.1	0.5	0.5	26.5	0.8
0세	12.7	0.3	0.9	0.3	-	-	-	2.7
1-9세	3.1	0.9	0.5	0.3	0.1	0.1	0.1	0.7
10-19세	9.8	2.3	0.2	0.4	0.1	0.1	5.8	0.1
20-29세	25.0	4.3	0.5	0.4	0.2	0.3	10.6	0.4
30-39세	33.6	4.0	0.9	0.3	0.3	0.4	22.5	0.5
40-49세	46.3	5.2	2.6	0.8	0.4	0.7	31.5	0.8
50-59세	60.3	9.9	5.5	1.4	0.8	1.0	38.4	1.2
60-69세	93.6	20.7	17.2	2.8	1.6	0.9	46.6	1.0
70-79세	176.0	38.8	29.3	6.6	3.8	0.8	32.9	0.8
70-79세	199.4	31.2	17.8	3.5	1.4	0.9	48.9	1.1
80세 이상	311.2	38.9	49.4	5.1	4.4	1.5	69.8	1.4

- 2018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의도적 사고에서는 운수사고(24.7명), 추락사고(17.2명), 익사사고(2.8명) 순으로 높음
- 의도적 사고로는 자살(43.6명)이 가장 높음.
- 특히 고령자의 사고 사망률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음.
- 60세 이상 노인 중 4.7%가 지난 1년간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자살 충동 이유로는 건강문제(34.5%), 경제적 어려움(34.4%), 가정불화(13.1), 외로움(12.9%) 등으로 나타남(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
- OECD는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한국 10대 자살률의 13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함(OECD, 2019).

노인의 안전사고 동향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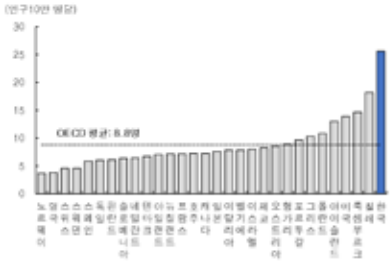


주: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임.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 노인의 비의도적 사고로 인한 사망 중 운수사고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
- 2018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21만 7,148건 중 노인 교통사고는 38,647건으로 17.8% 수준.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만 3,656건에서 21만 7,148건으로 2.9% 감소하였지만,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2만 8,185건에서 3만 8,647건으로 37.1% 증가.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5,392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감소했으나, 이 중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12년 34.6%에서 2018년 44.5%로 9.9%p 증가.
- 고령자의 운수사고 중 보행자의 사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노인의 안전사고 동향

OECD 국가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2016



주: 1)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 노인 인구 10만 명당 3.6명 수준.
- 반면 한국은 25.6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음. 이는 OECD 평균인 8.8명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은 수치임.

노인의 안전사고 동향

연령 및 낙상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2016

(명)

	동일면	침대	계단	사다리	비계발판	건물	다른면	기타	합계
전체	264	55	288	49	50	395	146	1424	2603
10대 미만	0	0	0	0	0	5	0	10	15
10대	0	0	0	0	0	12	0	5	17
20대	0	0	8	0	1	15	1	19	44
30대	4	0	8	2	2	31	8	34	89
40대	11	1	27	5	8	65	25	118	261
50대	14	4	65	13	23	103	55	256	533
60대	20	6	69	17	12	95	21	225	486
70대	53	13	68	9	4	39	21	332	559
80대 이상	112	32	43	3	0	9	14	336	589

출처: 통계기반임, 「한국인의 안전보고서(2017)」, 2018.

- 낙상(추락 등) 역시 노인 사망의 큰 비중을 차지.
- 동일면과 침대 등에서의 낙상사고는 70대 이상 노인에서 급격하게 증가.
- 계단, 사다리, 비계발판, 건물 등에서의 낙상 사망사고는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크게 증가.

장애인의 안전사고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사고 발생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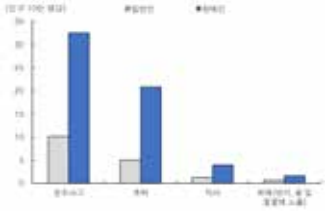
	장애인	전체인구
인구(1,000명)	2,646	50,747
사고자수(1,000명)	205	360
사고발생률(%)	7.7	0.7

주:1) 사고발생율=(해당 사고자수÷해당 인구)x100.
출처: 보험연구원,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2018.

- 2000년 이후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연령과 장애 출현율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이유는 노화에 따른 시력저하, 청력저하 등 신체능력이 감소가 나타나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
- 노인은 신체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사고로 장애를 얻을 가능성 또한 청·장년층에 비해 높음.
- 2012년 기준 전체 인구의 사고 발생률은 0.7%로 집계된 반면 장애인의 경우는 7.7%로 집계됨.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건·사고의 위험에 10배 이상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줌.

장애인의 안전사고

일반인과 장애인의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률, 2016



출처: 국립재활원, 「2016년도 장애와 건강통계」, 2018.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6.

- 2016년 기준 운수사고의 경우 일반인의 사망률은 10.1명인 반면 장애인은 32.5명으로 약 3배 이상 높음.
- 추락사고 사망률 역시 일반인은 5.1명, 장애인은 20.8명으로 4배가량 높음.
- 익사사고의 경우 일반인은 1.3명, 장애인은 3.9명, 화재사고 사망률의 경우에도 일반인은 0.6명, 장애인은 1.6명임.
-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 비율은 57.4%로 12.1%인 비장애인의 사망 비율보다 약 5배가량 더 높음(보험연구원, 2018). 이는 거동상의 제약, 감각상실(청각, 시각 등) 등의 장애로 인해 신속한 화재 발생 인지가 어렵거나 대피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됨.

장애인의 안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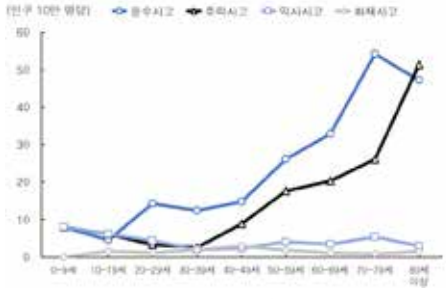
장애인 대상 사고유형별 구조 건수, 2009-2013

	장애인 구조건수 (건)	비율 (%)
갇힘사고	474	30.6
안전조치	369	23.9
위치추적	234	15.1
문개방	102	6.6
자살기도	95	6.1
시설조치	82	5.3
동행위험	51	3.3
거동불편	37	2.4
끼임사고	30	1.9
산악사고	22	1.4
화재사고	17	1.1
자연재해	15	1.0
수난사고	9	0.6
추락사고	5	0.3
교통사고	4	0.3
동파사고	1	0.1
합계	1,547	100.0

- 장애인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갇힘사고가 전체의 30.6%(474건)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안전조치 23.9%(369건), 문개방 6.6%(102건)의 순으로 높음.
- 교통사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4건(0.3%), 화재사고는 17건(1.1%), 산악사고 22건(1.4%)으로 나타남.
- 비장애인들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비상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장애인의 안전사고

장애인의 연령집단 및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률, 2016



출처: 국립재활원,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2018.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이 상승.
- 운수사고 사망률은 70-79세의 장애인이 54.3명으로 가장 높음.
- 추락사고 사망률은 연령 증가와 함께 높아지지만, 익사와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음.
-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은 66.8명으로 전체 인구의 자살 사망률(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포함)인 25.6명보다 2.6배 이상 높음(국립재활원, 2016).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자살 원인은 장애인 가구의 만성적 빈곤문제와 직장문제, 신병에 대한 비관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안전취약계층 &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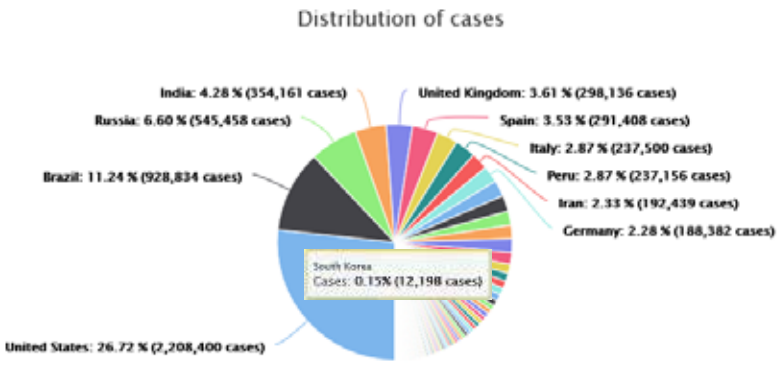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5월 22일 0시 기준, 11,142명 2020)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1,142 (100)	264 (100)	2.37
성별	남성	4,616 (41.43)	138 (52.27)	2.99
	여성	6,526 (58.57)	126 (47.73)	1.93
연령	80세 이상	490 (4.40)	128 (48.48)	26.12
	70-79	718 (6.44)	78 (29.55)	10.86
	60-69	1,369 (12.29)	38 (14.39)	2.78
	50-59	1,974 (17.72)	15 (5.68)	0.76
	40-49	1,473 (13.22)	3 (1.14)	0.20
	30-39	1,225 (10.99)	2 (0.76)	0.16
	20-29	3,111 (27.92)	0 (0.00)	-
	10-19	633 (5.68)	0 (0.00)	-
	0-9	149 (1.34)	0 (0.00)	-

- 현재까지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는 없지만 안전취약계층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COVID19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당연히 많을 것으로 예측.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0-29세가 가장 높고, 80세 이상, 50-59세, 60-69세 순으로 노인그룹에서 인구대비 발생률 높음. 확진률은 여성이 높으나 사망률과 치명률은 남성이 높음.
- 사망률과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 수x100)은 60세 이상 그룹이 전체 사망률의 92.4%이고, 치명률 역시 가장 높음.
- 장애인의 COVID19 감염율 사망률 관련 정확한 통계 부재하나 장애인시설 집단 확진 다수 보고되고 있음(예, 칠곡 밀알사랑의 집 22명, 극락마을 직원 1명, 대남병원 111명 등, 복지로, 2020-02-25).
- 국제통계를 보면, 5월 22일 현재 11142명 확진, 264명 사망, 716명의 격리환자와 15명의 중환자.
- 확진자 수에서는 45위, 현재 격리 중 환자수는 81위로 전세계에서 위험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 위치 (WORLDOMETER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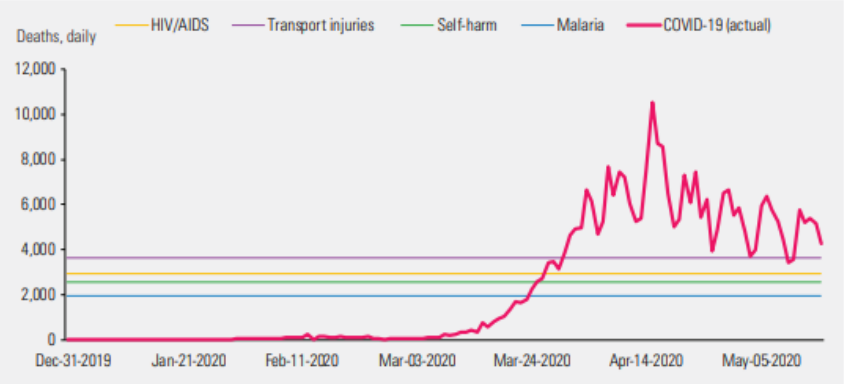
신종위험 COVID19과 글로벌 팬데믹

전세계 COVID19 확진자 분포 (2020년 6월 17일 현재)



재난.안전사고 사망률과 COVID19 사망률 비교

Figure 1.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COVID-19 versus other causes



Source: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ourworldindata.org (accessed 29 April 2020).

COVID19과 장애인의 취약성

맺음말

- 어린이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이 하향추세에 있음. 그러나 운수 및 질식사고 등 부주의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노인의 경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은 운수사고가, 손상(입원 등)은 낙상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 전체 운수·낙상사고 중 노인 비중이 높은 유형의 사고가 빠르게 증가.
-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일반인의 10배에 달하고, 특히 운수, 추락, 익사 사망률이 높음.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도 훨씬 높음.
- 따라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사고발생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과 지원 마련이 필요.
- 특히 장애 인구의 절대적 수와 인구대비 장애인구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안전정책이 요구됨.
- 이번 COVID19과 같은 신종감염병의 경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위험소통, 장애 맞춤형 방역물품, 사회적 격리 시 활동지원, 시설 중심의 장애지원 정책의 한계 등의 새로운 문제 대두. 이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필요.

감사합니다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제1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통계청
통계개발원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